

류츠신(劉慈欣)의 《삼체(三體)》 읽기

- ‘과학’과 ‘문학’의 상호관계 -

김 미 정*

<目次>

- | | |
|----------------------|-----------------------|
| I. 들어가는 글 | IV. 《삼체》3부작, 어떻게 읽을까? |
| II. 과학사유와 인문사유 | 1. 디테일로 구현되는 |
| 1. 과학의 법칙과 과학적 서사 | 불가사의한 우주 |
| 2. 우주의 도덕성과 인류의 | 2. 과학과 문학의 줄타기 |
| 도덕성 | V. 맺는 말 |
| III. 중국적인 것과 초중국적인 것 | |

I. 들어가는 글

SF(Science fiction)문학¹⁾은 대표적인 장르문학이다. 장르문학이라는 것은 일종의 유형화된 대중문학, 즉 특정 장르가 갖는 전형적인 형식과 구성을 따르는 문학이란 뜻이다. 따라서 순수문학을 지향하는 독자나 평자가 조금은 경멸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장르문학일 것이다. 중국에서는 SF문학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 본 논문은 국내에서 번역된 《삼체》 3부작을 기본 텍스트로 사용하였다. 간혹 번역본의 맥락이 필자의 생각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重慶出版社 판 《三體》 원문을 직접 번역하고 인용하였다. 원문을 직접 번역, 인용한 경우에는 서지사항을 중국어로 표기하였다.

1)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SF문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서술상 ‘과학’이 강조되어야 할 경우 ‘과학소설(문학)’이란 표현도 겸용한다. 다만 중국적인 상황을 설명할 때는 중국식 용어 ‘과학문학’이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을 과학(科幻)문학이라 부르고 있다. SF문학 본명에는 없는 공상 또는 환상적 요소가 굳이 자리잡고 있다. 물론 이런 명명에는 중국 나름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이 담겨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본 논문에서 중국의 과학문학사는 일단 논외로 친다. 다만 여전히 리얼리즘을 강조하며 인민의 삶에 밀착할 것을 강조하는 기존의 중국 주류 문학계에서 SF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SF소설의 유형화된 제재 가운데 하나가 지구 밖 지적생명체의 존재, 그리고 더 나아가 초고도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외계 문명과 조우, 또는 외계문명의 지구 침입이다. 그런데 이 스페이스 오페라적인 클리셰가 놀라운 반전의 우주서사를 연출하면서 냉혹한 우주의 물리법칙과 생존위기에 직면한 인류문명을 고민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그저 흥미진진한 대중문학, 또는 현실 도피적인 마취성의 공상문학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류츠신(劉慈欣)의 지구의 과거(地球往事) 시리즈인 《삼체》 삼부작, 《삼체(三體)》, 《삼체Ⅱ-암흑의숲(黑暗森林)》, 《삼체Ⅲ-사신의 영생(死神永生)》은 여러 모로 성공작이다. 전형적인 하드SF(硬科幻)로 평가되지만 발표와 함께 중국 내에서 대중적 붐을 일으키며 단숨에 중국 신시기 과학소설의 상징으로 우뚝 섰고, 2015년 SF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휴고상(Hugo Award)까지 수상하며 전세계적인 명성을 떨쳤다. 2019년에는 전세계 SF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 SFS(Science Fiction Studies)에서 류츠신 특집호도 발행됐다.

중국 내에서 반응도 확연히 달라졌다. 대중적 열광에도 불구하고 현대소설의 핵심요소인 인물형상의 깊이가 부족하고 구성이 산만하여 문학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평가절하 했던 기존의 평단이었지만 휴고상을 수상하고,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 등 국제적 유력인사들이 직접 《삼체》를 거론하며 찬사를 보내고, 구미서점가에서 판매돌풍을 일으키자 결국 류츠신과 《삼체》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신문방송 등 매체의 보도가 앞다퉈 나왔고, 독서필기와 학술연구논문도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2019년 중국 전역에서 개봉돼서 초흥행 기록을 세웠던 류츠신 원작의 SF영화 <유량지

구)는 이러한 류츠신붐 속에서 탄생한 것²⁾이었다.

그런데 소설 《삼체》에 대한 독해와 수용의 초점은 SF의 발상지 격인 서구, 작가의 모국인 중국, 그리고 나름대로 SF장르의 팬덤을 갖고 있는 한국에서 저마다 꽤 차이가 있는 듯하다. 우선 SF소설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북미서구사회에서 《삼체》는 하드 과학소설로서 탁월함은 물론이고 현대 중국의 가장 미스터리한 정치적 대사건인 문화대혁명의 참상과 허물을 들춰낸 중국적인 SF로 주목받았다. 중국적인 것이 참신하게 받아들여진 것³⁾이다.

이에 반해 작가의 본국인 중국에서는 세계의 근대적 재편 이후 제3세계의 투쟁의 역사경험을 기록한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의 이른바 ‘민족 알레고리’로 류츠신의 소설을 평가하는 경향⁴⁾이 있다. 《삼체》는 근대 서구를 대표하는 세계관이자 인문관, 그리고 1980년대 이래 중국 사회에 범람했던 신계몽주의적 자유주의의 표상, 칸트의 ‘머리 위에는 별이 빛나는 하늘, 내 마음 속에는 도덕법칙’이라는 정언명령을 단숨에 전복시키면서 현재의 국제 갈등과 투쟁의 구조를 암시⁵⁾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중국 내의 움직임에 대해 《삼체》가 갖는 보편성과 세계성을 강

2) 물론 영화 <유랑지구>에 대한 중국의 열광은 류츠신붐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중국의 국민배우로 불리는 뤄京(류페이창 역)의 역할, ‘과학굴기, 우주굴기’를 천명함과 동시에 ‘인류운명공동체’를 내세워 세계의 리더로 자리 잡고자 하는 중국 정치권과 대중의 욕망이 상호 작용하며 21세기 중국식 애국주의가 발동한 면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진공 논문 참조.

3) 劉軻·李雲, 〈從西方解讀偏好看中國科幻作品的海外傳播—以劉慈欣《三體》在美國的接受為例〉에는 2017년 9월 Goodreads와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실시한 독자평가의 결과를 도표로 실고 있다. 두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은 《삼체》에 대해 각각 ① 중국적 특색, ② 과학적 색채, ③ 인류의 중국에 대한 관심(순서는 두 사이트 약간의 차이) 때문에 높이 평가한다고 답하고 있고, 吳瑾瑾: 〈中國當代科幻小說的海外傳播及其啓示—以劉慈欣的《三體》為例〉에서도 《삼체》가 해외독자에게 흡인력이 있었던 이유를 ‘新奇性, 世界性, 本土性’을 들고 있다.

4) 羅雅琳, 〈新穎的劉慈欣文學: 科幻與第三世界經驗〉, 《現代中文學刊》 第5期, 2016.

5) 余亮, 〈刺破人文星空, 誰是《三體》的同行者〉, 《文藝理論與批評》 第4期, 2021.

조하며 《삼체》를 ‘민족 우연’의 틀에 가두지 않기를 당부하는 목소리⁶⁾도 있지만, 《삼체》를 근대과학정신의 현현체로 상징되는 서구에 대해 도전자 중국이 이뤄낸 쾌거로 인식하는 분위기는 여전히 있는 듯하다.

그런데 이런 비교와 경쟁 심리 속에서 이들은 《삼체》가 서구 독서시장에서 거둔 다른 성공요소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삼체》는 분명히 중국어로 쓰여진 중국식 과학소설이다. 류츠신은 사건을 전개하고 인물들을 배치하는 데 과학적 지식 외에도 중국의 역사와 문화적 요소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묘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기 보다 중국 문화적 상징성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여기에 중국어 자체가 갖고 있는 함축성과 애매성까지 더해진다면 《삼체》는 서구인들에게 생소하고 비과학적인 과학소설로 비춰졌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삼체》는 서구에서 성공했을까? 중국 연구자들은 이질적인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은 ‘번역’문제에 눈을 돌렸고, 중국계 미국인이며 그 자신이 저명한 SF작가인 켄 리우(Ken Liu, 중국명 刘宇昆)의 번역에 주목했다. 켄 리우의 번역은 《삼체》의 원문을 상당히 조탁하여 간결하고 투명한 서구식 SF 문체로 재탄생시킨 것⁷⁾이었다. 《삼체》는 번역을 통해 서구 과학소설의 문체적 특징 및 중국어의 내재적인 특징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도 되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 《삼체》에 대한 반응은 또 다르다. 일단 본격적인 학술논문은 모두 중국문학연구자에서 나왔고, 문학연구자의 특성 때문일 것으로 짐작되는 것처럼 그 주제는 《삼체》의 실존주의적 독해거나 정치윤리 및 국제정치 구상에 관련된 것⁸⁾이었다. 《삼체》의 SF소설로서의 매력은 SF소설 전문평론가에 의해서 다루어지기도 했지만⁹⁾, 웹상에는 《삼

6) 李廣益, 〈中國轉向外在: 論劉慈欣科幻小說的文學史意義〉,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第8期, 2017.

7) 宋明煒, 〈在崇高宇宙與微紀元之間: 劉慈欣論〉, 《當代文壇》第1期, 2021.

8) 朴민호, 〈류츠신의 《삼체》를 통해본 정치적 알레고리와 윤리의 아이러니〉, 《中國文學研究》, 2018. 박정훈, 〈류츠신(劉慈欣) 《삼체》의 니힐리즘적 세계관 고찰〉, 《中國研究》第86卷, 2021.

9) 고장원, 《중국과 일본에서 SF소설은 어떻게 진화했는가?》 부록, 작풍리뷰.

체》의 과학소설로서의 자격에 의문을 표하는 경우도 있었다. 《삼체》에 운용된 과학지식이 치명적 오류들을 품고 있고, “이 과학지식들을 무시하고 플롯의 진행을 위해 가상의 존재를 도입했다면, 이것은 환상 소설이지 하드SF라고 할 수 없다”¹⁰⁾는 것이었다.

본 연구자는 《삼체》에 대한 국내외의 반응들이 모두 진실의 일면과 각각의 ‘욕망’을 담고 있다고 판단한다. 다양한 반응과 평가는 실제로 《삼체》자체의 내용과 스토리 구성에서 유래한다. 그것은 《삼체》가 대단히 복잡하고 다층적인 구조와 범주를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삼체》는 기본적으로 인류 역사와 과학 발전의 상관관계와 파급효과를 정치, 경제, 사회학적 관점에서 광범하게 다루면서 지구에서 벌어지는 인류 간의 국제 정치투쟁을 우주의 투쟁으로 상상한 면이 있다. 그런 면에서 《삼체》를 일종의 우주정치철학서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삼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삼체》의 우주는 역겹의 시간 속에 자연계의 4가지 힘의 물리법칙만 작동하는 우주가 아니다. 생명과 문명의 인위적인 활동이 상호 작용하며 변화하는 우주다. 생명이 지구의 모습을 바꿔놓았듯이, 지구상의 인류도 우주 어딘가의 다른 지적생명체도 우주를 변화시킨다. 시간의 기원, 우주의 종말, 빅뱅과 우주의 복원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모든 행위는 우주의 운명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갖는 《삼체》에서 각자의 관심에 상응하는 다양한 의미를 끌어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삼체》는 본격적인 ‘하드 SF소설’, 그것도 드물디 드문 ‘탁월한’ ‘하드 SF소설’이란 점에서 높게 평가됐다. 이에 본 논문은 하드 SF소설의 증추라 할 수 있는 과학문제에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다만 필자 역시 중국문학을 연구한 인문학 전공자인 까닭에 소설에서 쓰인 과학법칙의 진위여부를 ‘과학적으로’ 증명할만한 능력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체》의 과학적 기반, 나아가 과학적 논리와 소설적 상상이 상호 작용하는 양상은 소설을 이끌어가는 핵심 중의 핵심일 수밖에 없다. 이에 필자

10) <https://blog.naver.com/rockid74/222065174856>, 작성자: 뉴로 <류츠신 소설, 《삼체》의 치명적 오류들>

는 조심스럽게 ‘과학’적 지식이 문학적 상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을 점검하여, 《삼체》의 ‘과학’과 ‘문학’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의 연구에 대해서 필자의 견해를 묵시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II. 과학사유와 인문사유

1. 과학의 법칙과 과학적 서사

류츠신은 엔지니어 출신이다. 공학 및 컴퓨터 관련 전문 지식 외에 양자역학을 중심으로 하는 물리학, 수학, 천문학 등을 섭렵하며 과학적 지식을 쌓았고, 《삼체》는 바로 이러한 과학지식과 과학적 사유를 기반으로 스토리텔링되고 있다. 즉 과학적 전개와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과학적 소재들이 서사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삼체》에는 많은 편쪽을 들여 현대과학기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렇기는 해도 현대과학에 대해 아마추어적 흥미만 있다면 이 소설이 딱딱하거나 건조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과학이론의 추론과 해석이 소설의 과학적 사유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상력의 기초이자 서사의 일부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혹자는 《삼체》의 과학적 미학적 특징을 ‘과학의 경계’에서 비롯되는 예측불가하고 중복불가능한 ‘특이점’¹¹⁾에서 찾기도 한다. 확실히 암흑물질, 초끈이론, 다중우주, 양자 얽힘 등 《삼체》에 등장하는 과학이론들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전위적인, 그래서 고전물리학의 경험적인 과학적 상식을 초월할 수 있게 하는 가설들이고, 《삼체》는 입증 가능한 과학의 범위를 가로질러 그 경계 끝에서 문학적 서사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11) 曾軍, 〈《三體》的 ‘Singularities’或科幻全球化時代的中國邏輯〉, 《文藝理論研究》 第1期, 2016.

《삼체》서사의 첫 번째 과학적 전제는 바로 ‘삼체운동’의 불가해성이다. 세 물체 간의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고, 이 결과로 어떠한 궤도 움직임을 보이는지 예측하는 삼체문제는 이미 1887년 앙리 푸앙카레에 의해 일반해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증명했던 문제이다. 바로 이 예측불가능한 세 개 항성의 궤도 운동 속에서 살아남은 삼체행성,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구와 불과 4.3광년 거리에 있는 센타우루스 자리 삼중성계에 속한 삼체행성과 그들의 문명이 소설 《삼체》의 기본 구도가 된다. 필자가 판단할 때, 소설 《삼체》의 기막힌 과학적 창의력과 상상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 불가해한 ‘삼체문제’를 실제로 지구 최근접 항성계인 센타우루스 자리 세 개의 항성에 적용시켜 삼체문명이 이 파멸적인 생존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야 하는 설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극악한 상황에서 190여 차례 소멸과 생성을 반복한 삼체문명의 역사를 구현하고 있는 것은 가상현실게임 ‘삼체’이다. 가상현실게임에 묘사되는 삼체행성의 생존과 문명의 과정은 오로지 우주에서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탐색, 즉 삼체운동의 규칙성을 밝혀내야 하는 데에 있었다. 그 삼체운동의 과학적 규명에 동원되는 가상 캐릭터로 周 문왕, 목자, 진시황, 코페르니쿠스, 뉴턴, 폰 노이만, 아인슈타인 등이 차례로 등장하고, 그들은 각각 역사 속의 역할을 상징하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모두 삼체세계를 구하지 못하고 멸망한다. 긴 시간이 지난 다음 생명과 문명이 되살아나 진화를 다시 시작한 삼체세계는 마침내 192번째 문명 속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확실하게 파악한다. 그것은 파멸이었다. 원래 있었던 12개의 행성 중 이미 11개의 행성이 태양(항성)에 통째로 잡아먹혔고 지금까지 191번의 문명의 흥망성쇠에서 기울였던 노력은 모두 헛된 것이었으며, 이제 삼체문명이 나아갈 길은 센타우루스 삼중성계를 떠나 우주의 새로운 정착지로 이주하는 것 밖에 없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삼체》의 두 번째 과학적 소재가 등장한다. 지구에서 외계문명을 향해 전파를 보낸 것이다. 인간에게 절망한 지구의 여성 과학자 예원제(葉文潔)는 전파 메시지의 출력을 증폭하기 위해 태양의 광구면을 일종의 증폭기로 이용하는 천문학적 실험과 도발을 감행한다. 그리

고 태양을 전파증폭기로 활용하는 소설 속 과학 기술은 이후 《삼체》의 서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뤼지(羅輯)가 우주의 상태가 ‘암흑의 숲’임을 확인하기 위해 저주의 주문을 발사하는 것도 태양을 이용한 것이었고, 이후 삼체세계가 가장 먼저 봉쇄했던 인류의 기술도 태양을 증폭기로 사용하는 기술이었다. 그것이 설령 고도의 과학 기술은 아니라 하더라도 전우주를 향해 태양계와 삼체항성계의 좌표를 노출시킨다면 궁극적인 공멸의 위협이 있기 때문이다. 뤼지가 이른 바 ‘눈밭(雪地)프로젝트’로 삼체에 대한 위협에 성공한 것도 결국 삼체세계의 감시의 눈을 태양 증폭기에 묶어두었기 때문이었다.

《삼체》의 세 번째 과학적 상상의 구현체는 ‘양자얽힘’을 이용한 지자(智子)이다. 삼체세계의 과학자들은 양성자 입자를 2차원 막으로 펼쳐 그 안에 회로를 식각한 뒤 지구로 발사한다. 삼체세계는 이 지자를 통해 4광년 밖 지구의 삼체문명 추종자들과 실시간 통신을 하면서 지구에 직접 테러를 지시하고, 지구 과학자들의 물리학 기초이론의 발전을 봉쇄하며 동시에 삼체 위기 출현 이후 지구의 대응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도 한다. 일종의 양자컴퓨터인 지자는 그 작은 크기와 광속을 뛰어넘는 속도 때문에, 한 개인의 망막에 카운트다운 숫자를 새기거나 온 우주가 나를 위해 반짝이는 우주배경복사의 환상을 만들고 지구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가속기 입자 실험을 오염시킬 수 있을 만큼 전지전능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의 형상을 한 인공지능로봇으로 변신하여 삼체세계의 메신저로 활약하기도 한다. 이 지자는 《삼체3-사신의 영생》에서 태양계가 소멸한 뒤, 마지막 인류 청신(程心) 및 관이판(關一帆)과 더불어 지구와 삼체문명의 기억을 간직한 안드로이드 동반자이기도 하다.

‘양자얽힘’은 류츠신이 광년을 단위로 생각해야 하는 우주공간의 물리적인 거리를 극복하고 현실적인 우주투쟁을 가능하게 만든 독창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양자얽힘이란 상관관계가 있는 두 양자입자는 상태가 중첩돼 있다가 관찰을 통해 어느 한 쪽의 상태가 결정되면 그와 동시에 나머지 양자의 상태도 결정되는 현상이다. 두 양자 간의 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실시간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초광속통신의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지자와 4.3광년 떨어져 있는 삼체세계의 실시간 통신은 바로 이 때문에 가능했다. 물론 양자얽힘은 정보전달은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다는 아인슈타인 상대성이론의 대전제와 상호모순되는 현대 물리학계의 난제이기도 하다.

《삼체》의 네 번째 과학사유의 결정체는 블랙존에 대한 가능성 탐색이다. 삼체항성이 파괴되고 삼체행성도 뒤이어 파괴되자 삼체함대도 방향을 돌려 태양계에서 멀어지고, 지자는 인류가 우주를 향해 지구가 안전하고 무해한 곳임을 알릴 수 있다고 언급한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블랙존, 즉 광속을 태양계의 인력에 저항하여 외우주로 진출할 수 있는 탈출속도(제3우주속도)인 16.7km/sec 이하로 떨어뜨려, 태양계 내의 어떤 물체도 빛의 속도를 넘어서서 태양계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스스로 블랙홀화 되면, 다른 외계문명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우주안전보장 성명을 발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발상이 개시된다. 그러나 빛의 물리적 힘을 국부적으로 변형시켜 블랙홀을 만든다는 발상은 소설 속에서 거둬 불가능한 것이었음이 예시된다. 그런데 뜻밖에 블랙존 생성에 대한 복선은 삼체함대의 광속 항행 이후 우주공간에 새겨진 항적을 발견하는 데서 나타난다. 태양계 경보시스템 1호 관측 유닛에서 곡률 추진에 의한 광속항행이 시공간을 비틀어 관측가능한 항적을 남긴다는 것을 발견했다. 곡률추진 항법이란 1994년 미구엘 알쿠비에르가 제안했던 초광속 항법, 즉 전방의 공간을 수축하고 그만큼 후방 공간을 확장하여 빠르게 나아가는 방식¹²⁾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간의 팽창은 속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대성이론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곡된 시공간으로 인한 항적, 그것이 바로 블랙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신에 의해 저지된 토마스 웨이드(托馬斯 維德)의 광속우주선 개발은 그래서 큰 의미를 지닐 수 있었다. 광속우주선 1000대를 제작하여 태양계를 감싸는 항적을 만들면, 광속우주선

12) 고장원, 우주여행의지름길: 워홀&알쿠비에르항법, https://www.sciencetimes.co.kr/page/22/post_type=news

을 타고 우주로 나갈 사람은 나가고, 블랙존화 된 태양계에 남아 있을 사람은 안전하게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청신 역시 관이관과 함께 문체의 향적에 간혀 1800만년의 시간을 흘러보냄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마지막 인류가 되었고, 이미 시간 밖에 처한 지구의 과거를 기억하는 최후의 기록자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순수한 과학소설의 상상력을 보여준 것은 허를 찌르는 기상천외한 우주 전쟁, ‘저차원화 공격’이다. 유독 광속 우주선의 필요성과 우주의 4차원 공간에 들어갔을 때의 생생한 체험에 대한 묘사에 천착하던 작가는 급기야 인류 절멸의 시나리오를 태양계의 2차원화로 써내려간다. 태양계와 인류의 위치를 파악한 미지의 고도외계문명은 결국 ‘2차원 벡터 포일’을 지구로 투사하여, 태양계 전체를 2차원의 평면으로 끌어당기면서 소멸시키고 만다. 이 상황에서 태양계 탈출이 가능했던 이는 지구상의 유일한 광속 우주선인 헤일로호에 탑승한 청신과 AA 두 사람뿐이다. 형형색색의 2차원 박막으로 변했다가 증발되어 결국 중력만을 남긴 채 관찰할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암흑 속에 사라진 태양계는 이렇게 종말을 맞았다.

초근이론을 바탕으로 차원의 문제를 다루는건 웬만한 과학소설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일이다. 시각화된 설명이 중요한 과학소설에서 상위차원에서 하위차원으로 내려앉는 상황, 즉 우주 시공간의 물리법칙이 달라지는 사태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대중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묘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 기이한 과학적 발상을 넘어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 저차원화 공격이 드러나고 나서야, 작가가 그리는 우주의 미래상, 11차원의 고차원우주가 계속 저차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 소설 속 우주의 진화는 결코 선을 향하지 않았다. 그 자체로 무도덕의 우주를 보여줄 뿐이다.

2. 인문사유의 깊이 – 우주의 도덕성과 인류의 도덕성

아이작 아시모프(Isaac Asimov)는 《파운데이션》에서 ‘심리역사학’이라

는 새로운 학문에 대해 서술했다. 그것은 유체역학, 수리통계학 정치 사회 경제학 등을 망라하여 거시적인 차원에서 인간사회집단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었다. 《파운데이션》이 과학적 상상력으로 미래를 예측한 것처럼 《삼체》 역시 인류의 온갖 인문 풍경과 우주의 문명에 대한 상상을 통하여 ‘우주사회학’의 태동과 발전을 설명한다. 우주사회학의 기본 전제는 예원제에 따르면 “생존은 문명의 첫 번째 필요조건이고, 문명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확장되지만 우주물질의 총량은 불변한다”¹³⁾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주의 모든 문명은 생존을 위해 한정된 생존자원을 두고 상호 견제하고 경쟁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생존 경쟁의 도덕률이다. 과연 우주에 도덕이라는 것이 있는가? 우리가 조우할 수 있는 외계 문명은 도덕적인 문명일까? 칼 세이건(Carl Sagan)은 이렇게 생각했다.

실제로 은하의 어느 두 문명권이 대등한 수준일 리가 없다. 그 어떤 대결에서든 항상 한 문명이 다른 문명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할 것이다. (...) 지구 문명이 악의에 찬 외계 문명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걱정할 필요조차 없다.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동족이나 다른 문명권과 잘 어울려 살 줄 아는 방법을 이미 터득했음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다스리고 남과 어울려 살 줄 모른다면 그렇게 오랜 세월을 견뎌 낼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외계 문명과의 만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후진성에서 유래한 것이다. 우리의 공포감은 우리 자신의 죄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잘 알고 있다.¹⁴⁾

칼 세이건이 선한 우주문명을 믿는 까닭은 ‘오랜 시간 살아남음’과 ‘높은 과학기술의 수준’에 있었다. 이런 사고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원제였다. 예원제는 인간사회에는 사라진 도덕이지만 저 우주의 고

13) 류츠신 작, 허유영 역, 《삼체2부-암흑의 숲》, 단숨, 2016, 17쪽.

14) 칼 세이건, 홍승수역, 《코스모스》, 사이언스북스, 2006, 506쪽.

도문명체에는 도덕이 있다고 믿었다.

심문관 : 그러면 당신은 왜 그들(삼체인)이 인류사회를 개조하고 완전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까?

예원제 : 그들이 항성 사이를 뛰어넘어 우리 세계에 올 수 있다면 그들의 과학은 이미 상당한 단계로 발전했을 것이고 과학이 그토록 발전한 사회라면 더 높은 문명과 도덕수준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문관 : 그 자체가 과학적인 결론인가요?

예원제 : ...15)

항성의 출력을 이용하여 태양계 밖으로 성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한 예원제에게 삼체문명체의 첫 답신은 “대답하지 말라(不要回答!)”는 경고였다. 그렇지만 예원제에게 그 경고는 우주 도덕성의 또다른 징표였을 것이다. 저열한 인류에게 자기 노출의 위험성을 경고해주는 존재야말로 진정한 우주도덕의 구현체가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예원제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삼체세계가 지구로 진입하는데 헌신했다. 그러나 후에 예원제가 발견한 것은 어두운 삼체세계의 본질이었고, 선한 우주도덕에 대한 상상은 자신의 편집증적 착각임을 깨닫는다. 이후 예원제는 ‘의심의 사슬’과 ‘기술폭발’이라는 우주사회학의 하위 개념을 재정비하고, 그 아이디어의 맥락을 딸의 동창생 뤼지에게 전해준다. 이 간단한 몇 가지 기본 전제야말로 《삼체》의 우주관을 상징하고, 후에 뤼지가 면벽자로 선발된 이유였으며 마침내 그가 삼체세계와 인류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원리였다. 자신의 생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도달했을 때, 뤼지가 발견한 우주의 진상은 바로 ‘암흑의 숲’의 논리였다.

우주는 암흑의 숲이에요. 모든 문명이 총을 든 사냥꾼이죠. 그들이 유령처럼 숲속을 누비고 있어요. (...) 숲 속 곳곳에 사냥꾼이 숨어있어요. 다른 생명을 발견하면, 그게 사냥꾼이든 아니든, 천사든 악마든, 갓난 아기든 꼬

15) 劉慈欣, 《三體 I 》, 重慶出版社, 2014年(3판), 260~261쪽.

부랑노인이든,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뿐이에요. 총을 쏘서 없애버리는 거죠. 이 숲에서 타인은 그 자체로 지옥이고 영원한 위협이에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 어떤 생명도 곧바로 없애버려야 해요. 이것이 바로 우주문명이고 페르미역설에 대한 해석이에요.¹⁶⁾

광활한 시공간에 펼쳐진 우주 문명 사이에는 서로의 선의와 악의를 판단할 길이 없고, 어떤 문명도 다른 문명이 순식간의 기술폭발을 통해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으리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존을 위해 상대를 즉시 소멸해야 한다는 《삼체》의 우주관은 아름답거나 선하지 않다. 선과 고귀함에 대한 인류의 감정이 최소한 죽음과 폭력이라는 생명을 위협하는 원초적인 공포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구축되었다면, 《삼체》가 바라보는 세상의 본질은 폭력과 죽음이 가득한 잔혹한 생존투쟁의 세계이며 무도덕의 세계이다. 《삼체》 전편을 꿰뚫는 모든 사건들의 내적 의미, 즉 소설 속 인물들의 상호관계와 스토리의 구성, 전개는 이 ‘암흑의 숲’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고, ‘암흑의 숲’ 개념으로 가공처리되고 있다.

우주의 본질이 무도덕성이었다면, 인류의 도덕성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스티븐 핑거(Steven Pinker)식으로 말하면, 폭력성을 줄이고 인도주의적 변화를 지속시킨 힘, 인간 마음의 악마를 제어하면서 오늘의 인류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 인간 마음의 천사는 이 위기의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작가의 말대로 옮기자면 “도덕이 있는 인류문명은 이런 우주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¹⁷⁾하는 문제일 것이다.

도덕성을 지닌 인류는 특이한 존재다. 그 특이함이 인류를 인류답게 만들어줬지만 인류를 내부에서부터 분열시키기도 한다. 삼체반군조직 ETO를 조직했던 예원제와 에반스는 인류 이외의 외계문명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곧바로 인류 정화를 목표로 삼체반군운동을 주도한다. 그들은 본래 동정심 풍부한 과학자, 또는 ‘종의 공산주의’를 실천하고자 했던 도덕

16) 류츠신 작, 허유영 역, 《삼체2부-암흑의 숲》, 669~670쪽.

17) 류츠신 작, 이현아 역, 《삼체1, 후기: 작가의 말》, 446쪽.

적 이상주의자였다.

삼체위기가 표면화됐을 때, 유엔은 전략적인 기만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삼체세계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조리 선발된 면벽자에 맡기는 프로그램이었다. 면벽자는 외부와 모든 소통을 차단하고 자신의 의도를 깊이 감춘 채 자신만의 거짓 왕국을 만들어 삼체세계의 대응에 혼란을 일으키는 역할을 해야 했다. 양자유령함대에서 수성추락 연쇄반응전략, 멘탈스탬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기묘묘한 작전이 수행됐지만 그 공통점은 반인륜적이라는 것이었다. 평화와 인도주의를 추구하는 인류의 도덕규칙에 부합하는 계획은 전혀 없었다. 삼체세계와의 대결에서 유일하게 승리를 기록했던 튀지의 소위 ‘상호확증 파괴’에 입각한 궁극적 위협도 마찬가지였다.

《삼체2-암흑의 숲》의 장베이하이(章北海)는 필패할 수밖에 없는 우주 전쟁에서 인류의 우주함대역량과 인류의 일부를 보전하고자 스스로 면벽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다. 철저한 준비와 확실한 위장으로 지구의 우주함대 5척을 태양계 밖으로 빼돌리는데 성공한 그는 우주함대에서 제2의 인류문명을 만들어야 했다. 그는 전제적인 군대체제에 반대했다. “인간의 본성과 자유를 존중”해야 “새로운 사고와 창의력”이 나오기 때문이다. 함대에 진정한 민주사회를 건설하자는 제의에도 반대했다. 재난 앞에서, 특히 부분을 희생해서라도 전체를 보존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민주, 혹은 인문적 사회는 몹시 취약하기 때문”¹⁸⁾이었다. 불굴의 의지와 냉철한 이성을 지닌,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류의 일부를 지구 밖으로 탈출시킨 장베이하이에게 민주주의나 인도주의는 필요하지만 무기력하고 허약한 것이었다.

인류 도덕성의 약점과 한계는 청신에게서 더 두드러진다. 청신은 두 번이나 인류생존의 길을 막아버리는 결정을 했다. 그녀의 선량함 때문이었다. 청신은 평화와 사랑의 화신이 되어 2대 검잡이로 선출되지만 그녀의 본능적인 인간애 혹은 불인지심(不忍之心)은 차마 인류와 삼체세계를 공멸

18) 류츠신 작, 허유영 역, 《삼체2부-암흑의 숲》, 608~609쪽.

시키는 결단을 내릴 수 없게 했다. “인류가 인성을 잃으면 많은 걸 잃지만, 수성(獸性)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¹⁹⁾며 광속우주선 개발에 매진하던 극단적 이성의 현실주의자 웨이드를 제지시킨 것도 그녀였다. 달갈처럼 연약한 우주도시와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 사랑에서 비롯된 청신의 행위는 인류를 인간지옥으로 몰고 갔고, 우주로 탈출할 기회를 봉쇄해버렸다.

인류의 보편적인 도덕성을 대변하는 청신을 제외한다면 뤼지, 장페이하이, 웨이드, 심지어는 예원제까지 소설 속에서 현실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의 도덕을 포기한 지독한 현실주의자들이다. 그렇지만 그들마저 우주 무도덕의 진상을 인지하는 과정 속에서 고통과 망설임을 겪는다. 도덕감각을 끊어내야 했던 그들의 고통에는 모종의 비장미마저 스며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암흑의 숲인 우주 위기에 휘말리면서 도덕적 주체였던 인류는 이미 주체로서의 지위를 잃은 것²⁰⁾이다. 무도덕의 생존경쟁의 장에 말려들어갈 때 인류는 스스로 게임규칙을 만들거나 선택할 수 없다. 인류 생존의 책임을 짊어진 이들은 도덕적 주체로서 자신을 내려놓고 기만과 위장으로 우주의 게임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뤼지 역시 압도적인 공세에 몰려있던 인류를 비도덕적 방식으로 간신히 삼체세계와 대등하게 대치할 수 있게 버티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그의 행위는 “인류와 삼체, 두 문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범우주적 인권체계를 수립해야”²¹⁾한다고 주장하는 여전히 천진난만한 인류를 암흑의 숲의 진정한 일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기도 했다. 결국 인류의 모든 시도는 실패했다. 우주에서 인류는 하찮은 존재였다.

19) 류츠신 작, 허유영 역, 《삼체3부-사신의 영생》, 단숨, 596쪽.

20) 宋明煒, 〈彈星者與面壁者〉, 《上海文化》, 2012.

21) 류츠신 작, 허유영 역, 《삼체3부-사신의 영생》, 160~161쪽.

III. 중국적인 것과 초중국적인 것

《삼체》는 눈부신 과학적 상상과 반전을 거듭하는 스토리 전개뿐 아니라 대단히 현실적인 진실감을 준다는 면에서도 특징적이다. 《삼체》의 우주서사에 구체성과 현실감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역사 경험이였다.

《삼체》이야기의 시점은 문화대혁명이다. 반동학술권위로 몰린 아버지가 홍위병들에 의해 맞아죽는 모습을 목도했던 젊은 여성 과학자 예원제에게 드러난 세계는 잔혹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아버지를 배신한 어머니, 무모한 정치적 열정으로 죽음을 재촉한 조반과 여동생, 大興安嶺에서 생태환경적 문제의식을 공유했지만 문제가 되자 곧바로 예원제를 팔아넘긴 바이무린(白沐霖)등 문혁 속에서 끊임없이 생사의 위기에 놓였던 예원제는 부지불식간에 인간 세상의 ‘암흑의 숲’의 논리를 깨닫고 있었고, 무의식적으로 ‘암흑의 숲’의 집행자가 되고 있었다. 이런 예원제가 비밀리에 진행되던 중국의 우주전파발사 계획에 참여하게 됐을 때, 그녀는 “붉은 태양에 초강력 전파를 발사하는”²²⁾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감행했고, 이로써 상대적으로 조악하기 그지없는 당시 중국의 과학장비와 기술을 뛰어넘어 항성급 출력으로 우주에 전파메시지를 발사할 수 있었다. 삼체세계의 독재와 억압에 진저리치던 하급감청원이 “대답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냈을 때, 예원제는 “지구로 오십시오. 인류는 이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었습니다”²³⁾고 화답했다. 이 꿈같은 계획에 흥안(紅岸)기지의 출세주의자 정치지도원 레이즈청(雷志成)과 자신을 사지에서 구해줬던 남편 량웨이닝(梁衛寧)도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자 그녀는 마치 그녀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을 죽여버린다.

소설 《삼체》 시리즈가 인류와 미지 세계와의 조우에서 시작하여 인류와 외계문명이 동시에 파멸에 이르고, 나아가 암흑의 숲으로 진화해온 우

22) 류츠신 작, 이현아 역, 《삼체1부-삼체문제》, 299쪽.

23) 류츠신 작, 이현아 역, 같은 책, 311쪽.

주가 종말에 이르는 전과정을 기본적인 구도로 하고 있다면, 이 ‘조우’라는 우주적 사건이 발생하는 계기가 바로 지구에서 일어난 현실적인 사건, 문화대혁명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인 문화대혁명과 종착점인 전우주의 종말은 불가사의한 논리적 연관성을 지닌다. 나의 생존을 위해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고 미리 없애버리는 ‘암흑의 숲’ 논리에 지배받는 현실 속의 인간들은 광막한 우주의 일부로서 모두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어둠 속의 존재들이었던 것이다.

문화대혁명에서 시작하여 《삼체》에는 중국의 상황을 연상시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놓여 있다. 《삼체1-삼체문제》에는 지구의 삼체반군조직이 인류에게 삼체세계에 임박한 재난을 이해시키기 위해 중국 역사의 사건과 인물을 차용하여 가상현실게임을 설계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래서 삼체게임에 접속했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商나라 紂王의 도읍지 朝歌로 향하는 周文王이다. 그는 자신이 이미 삼체항성운행의 법칙을 파악하였고 난세기가 곧 지나고 항세기가 올 것임을 자신했다. 그렇지만 문왕이 파악한 우주 운행의 원리는 삼체세계의 재난을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문왕은 주왕에 의해 술에 삶아졌다. 이런 상황은 진시황에게도 계속된다. 진시황은 삼천만병의 군사를 동원해서 최초의 인간컴퓨터를 만들어낸다. 왜 진시황일까? 그는 절대권력을 손에 쥔 독재자였고, 따라서 삼천만병의 군사를 연산의 도구로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드러나는 삼체세계의 은유는 분명하다. 위기에 봉착한 삼체세계는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고도의 집체적 전체적 사회를 추구하고 있고, 그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감정은 억압되어 있으며, 탈수된 삼체인의 가치는 빨감 또는 식량으로 환원된다. 외롭고 힘들었던 삼체의 1379호 감청원이 아름다운 지구를 동경하여 예원제에게 경고를 보낸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인류라는 종족에 절망하여 삼체세계를 구세주로 끌어들이었던 예원제의 현실 세계와 “개인의 존엄이 없는”, “극단적인 억압 정치”²⁴⁾에 놓인 1379호 감청원의 삼체세계는 그렇게 다른 세계였을까? 이렇게 보면 “소설 속의 삼체사회 묘사는 사실상 중국 당대사회의 변형”

이며 “직접적으로 (중국)현실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현당대사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곧 알아볼 것”²⁵⁾이라는 한 연구자의 담담한 고백은 《삼체》에 대한 열광 뒤의 중국인들의 복잡한 속내를 보여준다.

그렇지만 《삼체》에 나타나는 사건의 양상들이 전체주의적 양상을 띠는 중국의 현실정치체제만을 겨냥하는 것도 아니다. 더 많은 경우 “역사적 기원이나 문화적 유산과 관계없이 점점 균일화되어가는” 근대화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행복에 만족하고, 하찮은 욕망을 뛰어넘을 수 없는 자신에게 아무런 수치심도 느끼지 않는” “자유민주주의의 전형적인 시민”²⁶⁾인 인류 대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한사코 인류 존엄의 최후의 보루, 인권과 민주의 수호자로 나타나지만, 결국 기회주의자의 속성을 보일 뿐이다.

당장 외우주로 도피한 인류우주함대의 지휘관들은 생존자원의 부족 앞에서 살아남기 위한 결정을 해야 했다. 우주함대인류 간의 반인륜적 어둠의 전쟁은 이렇게 시작됐다. 훗날 재판에 넘겨진 청동시대호의 장교는 자신의 변신에 대해 “우주는 인간의 어두운 면을 증폭시키는 확대경”이며 “우주로 나간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²⁷⁾고 고백했다. “우주로 나간 인류가 전제사회로 변하는 것은 단 5분이면 충분”²⁸⁾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인류집단은 인류 밖의 이들을 반인류죄의 이름으로 단죄했다.

더 나아가 극적으로 삼체세계에 대해 공멸의 궁극적 위협에 성공하여 인류의 구세주로 추앙됐던 뤼지가 인류와 삼체세계의 존멸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권력을 지닌 검잡이가 되자, 대중들은 끊어오르는 번덕과 불만 속에서 점차 그를 폭군으로, 나아가 괴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검잡이의 직에서 내려온 그를 반인류죄로 기소하고자 했다. 이에 반해 2대

24) 류츠신 작, 이현아 역, 같은 책, 399쪽.

25) 劉媛, 〈科學思惟與人文思考的張力—評劉慈欣《三體》三部曲〉,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第1期, 2016.

26) 프랜시스 후쿠야마 지음, 이상훈 역, 《역사의 종말》, 한마음사, 12쪽, 22쪽.

27) 류츠신 작, 허유영 역, 《삼체3부-사신의 영생》, 527쪽, 142쪽.

28) 류츠신 작, 허유영 역, 같은 책, 138~139쪽.

검잡이가 된 청신에게는 어땠을까? 뤼지의 독재를 불편해하던 대중은 청신을 사랑의 상징으로 여기며 2대 검잡이로 선출한다. 하지만 청신은 검잡이 노릇을 포기했다. 인류집단은 청신에게 집단린치를 가했고, 청신은 자책감에 실명하고 자살까지 기도하게 된다. 그러나 외우주로 나간 그레비티호가 증력파를 발사하면서 인류가 잠시나마 이전의 생활을 되찾게 되자 대중들은 다시 청신을 어쩔 수 없이 검잡이로 뽑힌 체제의 피해자로 동정했고, 나중에는 엄청난 부담감과 무참한 굴욕을 견디면서 우주를 향해 파멸의 신호를 보내지 않은 성모로 추앙했다.

확실히 《삼체》는 살아남은 청동시대호의 승무원을 기어코 단죄하고자 하는 인류집단의 태도에 동의하지 않는다. 검잡이 뤼지와 청신에 대한 대중들의 변덕스런 애증, 그리고 지구저항군과 지구치안군에 대한 태도 등도 후쿠야마의 표현대로 ‘역사의 종언에 선 최후의 인간’ 또는 차라투스투라의 ‘말세인’의 유치증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가치 판단의 이면에는 중국 현대화의 과정에서 서구적 자유와 민주화를 억제하며 효율적인 공산당 일당체제를 통하여 21세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는 현재 중국정체권의 논리도 살짝 어른거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체》의 고민은 단순하지 않다. 《삼체》는 이른바 ‘대협곡시대’를 기억한다. 지구의 모든 자원이 우주방위전략에 집중되면서 전세계에 불경기가 찾아왔고 뒤이어 생활수준의 추락, 정치적인 압제와 사상통제, 환경악화와 식량고갈, 대기근, 인구격감을 차례로 겪으며 인류가 깨달은 원리는 “시간이 문명을 위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문명이 시간을 위해 흐르는 것”²⁹⁾이었다. 그 결과 삼체위기에 대해 잊어버렸더니 오히려 모든 게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인간의 본성이 해방되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필연”이기 때문이라 덧붙였다. 그것은 위기에 짓눌렸던 인류가 수십억 인구를 희생시키는 참혹한 경험 속에서 얻은 교훈이었다. 대약진운동 시기의 대규모 아사사태와 1980년대의 중국의 사상해방운동을 연

29) 류츠신 작, 허유영 역, 《삼체2부-암흑의 숲》, 473쪽.

상시키는 대협곡시대와 과학발전의 시대에 대한 서술은 류즈신의 시각이 일방적으로 중국몽을 부르짖는 21세기 현재의 중국에 편향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준다. 류즈신은 과학의 발전이 추동한 보편적인 역사의 종말로서 후쿠야마식의 자유민주주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그는 삼체 위기 이후 200년 뒤 풍요롭고 세련되며 평화롭고 여성화된 신인류의 모습 속에서 자아도취적이고 나약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 쉽게 현실을 망각하고 기만당하는 인류의 약점을 보았고, 나아가 그런 ‘소시민적인 감정’과 ‘윤리’와 ‘가치’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인류를 지속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삼체》는 인류의 역사를 국가나 민족의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라는 ‘종족’의 지평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삼체》에 구현된 인류의 역사경험은 대단히 중국적이면서 동시에 초중국적이다. 문화대혁명이란 특이한 중국적 상황이 중국의 정치와 역사의 상처로 국한되지 않고 전인류의 인성의 약점으로, 인간의 현실사회에서 벌어지는 ‘암흑의 숲’의 생존투쟁으로 기록되었고 나아가 우주질서의 보편원리로 제시되었다. 그런 면에서 《삼체》는 분명히 문화대혁명과 그 이후 중국의 현대화에 대해 비판적 개입을 하고 있고, ‘최후의 인간’으로 가득한 현대 사회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그것은 중국의 인문전통에서 배양됐지만 중국적 인문전통을 벗어난 중국인 과학작가의 과학적 사유의 극한을 보여준다. 본 연구자의 시야에서 《삼체》는 분명하게 중국적인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중국문학이었다.

IV. 《삼체》 3부작, 어떻게 읽을까?

1. 디테일로 구현되는 불가사의한 우주

무한한 우주는 경이롭다. 인간의 인지능력으로는 절대로 그 전부를 이

해할 수 없다. 이런 충격적이고 압도적인 대상 앞에서 느끼는 감정은 경외감이다. 장엄하고 웅장하고 숭고하기까지 한 우주에서 모든 인간사는 하찮고 자질구레하다. 이런 직관적인 느낌을 과학의 시각으로, 과학의 언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삼체》에는 압도적인 대상인 우주를 수학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그레비티호의 천문학자 관이판의 우주론이 묘사된다. 그에게 우주는 경외의 한 측면, 두려움이었다.

내 관찰대상(우주)은 전신마비 환자예요. (...) 광속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척도는 160억 광년이고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광속은 초속 30만 킬로미터밖에 안되죠. 느려터졌어요. 우주의 한쪽 끝에 있는 빛이 영원히 다른 쪽 끝에 도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광속보다 더 빠른 건 없으니까 이쪽의 정보와 작용력도 우주의 다른 쪽 끝까지 전달될 수 없죠. 영원히. 우주를 사람에 비유한다면 뇌에서 나온 신경신호가 온몸으로 전달되지 못해요. 그의 뇌는 팔다리의 존재를 모르고 팔다리는 뇌의 존재를 모르죠. 또 몸의 각 부분도 다른 부위의 존재를 몰라요. 이게 전신마비 환자가 아니고 뭐겠어요? 이것보다 더 끔찍한 비유도 할 수 있어요.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는 시체예요.³⁰⁾

《삼체》는 광대한 우주 풍경에 대해, 그 우주의 구조와 진화에 대해 정면 묘사하는 과감함을 보였다. 물론 관측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팽창하는 시체” 같은 우주를 과학적으로만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도 《삼체》는 환타지로 읽히지 않는다. 상상에 대한 타당한 논리가 내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초현실적 감각마저 정교하고 세밀한 디테일 묘사를 통해 현실에 구현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광대무변의 숭고함이 2차원의 평면세계로 굴러떨어지는 태양계의 ‘저차원화’의 묘사에서

30) 류츠신 작, 허유영 역, 《삼체3부-사신의영생》, 199쪽. 《三體Ⅲ》 136쪽에 근거하여 번역본의 ‘우주의 지름’을 원문대로 ‘우주의 척도’로 고침. 우주크기는 빅뱅 이후 인플레이션(급팽창)과정을 거쳐 우주의 나이 137억 광년보다 훨씬 더 큰 400억 광년이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 번역본의 ‘지름’은 오류로 판단된다.

집중적으로 등장한다.

2차원화된 탐사정 위로 2차원으로 펼쳐진 3차원 구조가 보였다. 우주선 좌석과 핵융합엔진, 좌석 위에 등글게 말린 인체의 형상이 보였다. 뼈와 혈관은 물론이고 신체의 각 부위가 분간할 수 있을 만큼 선명하게 드러났다. ... 2차원화 된 3차원 물체의 무한한 복잡성은 사실로 구현됐다. 기본입자 단위까지 분별할 수 있었다. 우주선의 모니터를 통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었지만 그 복잡성과 정밀함에 눈앞이 빙빙 돌 지경이었다. 오래 보고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도형이었다.³¹⁾

우주의 본래의 모습, 영원무변의 숭고함과 미지에 대한 공포감이 복잡하고 정밀하며 꿰뚫힌 세부적 사실로 묘사되면서 생생한 현실감으로 다가온다. 바꿔 말하자면, 세밀한 사실 묘사, 기본입자 단위까지 분별하는 치밀한 세부 묘사가 초현실의 진실감을 준다는 것이다. 미지의 우주에 대한 하드 SF의 이런 묘사법은 상당히 효과적이고 탁월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거대우주의 시원과 종말을 넘나드는 상상력을 미세한 세부적 사실로 규모화하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재현함으로써 가장 거대한 ‘우주’와 가장 미세한 ‘입자’가 서로 호응하는 우주 내면의 풍경도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과학과 문학의 줄타기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삼체》는 하드SF문학이다. 과학적인 이론과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면서 동시에 상상력의 극한을 보여주는 ‘문학’이기도 한 것이다. 《삼체》의 상상적 요소는 웬만한 환타지 소설보다 더 기발하고 독특하다. 《삼체Ⅲ부-사신의 영생》에서 나오는 윈텐밍(雲天明)의 세연작 동화는 류츠신의 과학과 문학의 상호 구성원리, 즉 류츠신의 SF적 상상의 지평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31) 劉慈欣, 《三體Ⅲ》, 重慶出版社, 2016, 452~453쪽.

삼체세계에 ‘뇌’만 보내졌던 윈텐밍이 청신을 만나 들려줬던 세 편의 이야기, 〈국왕의 새 화가〉 〈도철해〉 〈심수왕자〉는 유아기가 없는 삼체의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의 형식을 띄고 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신기하고 기괴한 상상력을 품고 전개되는 그 자체로 흥미로운 동화였지만, 또한 윈텐밍이 지구인류의 운명을 반전시킬 수 있는 과학적 열쇠들을 곳곳에 숨겨놓은 상징과 기호로 가득찬 내러티브이기도 했다.

이튿날 아침, 뚝단배가 구름 같은 거품을 길게 늘어뜨린 채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나아갔어. 그 후 그 나라 사람들 중 누구도 노주와 장범의 소식을 듣지 못했어. 노주가 왕국에 남은 마지막 히얼신컨모스컨 비누를 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그 후로는 아무도 도철어의 포위를 뚫고 빠져나오지 못했지.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어. 그런 생활에 이미 길들여졌으니까.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야기 없는 왕국에는 더 이상 아무런 이야기도 생기지 않았어.

하지만 가끔 조용한 밤이면 누군가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지. 왕국을 떠난 노주와 장범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하는 이야기였어. 저마다 다른 이야기였지만 두 사람이 신기한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고 바다처럼 드넓은 육지에도 가보았을 것이라는 상상은 모두 같았어. 영원히 항해하며 어딜 가든 행복하게 살았을 거라고 말이야.³²⁾

위 인용문은 윈텐밍 연작 동화의 마무리 부분이다. 흰 ‘뚝단배’가 ‘히얼신컨모스컨’의 ‘비누거품’을 늘어뜨린 채 ‘태양’을 향해 나아간 이야기, 그 이후 ‘이야기’ 없는 왕국의 누구도 ‘도철어’가 우글대는 바다를 건너지 못했지만 그런 생활에 ‘길들여져’ 불평하지 않은 이야기, 하지만 바다를 건너 두 사람의 씩씩하고 신기한 모험담이 신화처럼 전해온다는 후일담이다. 이 짧은 서술에도 수없이 많은 상징과 기호가 작동하고 있다. 인류의 운명을 걸고 동화연구가, 기호학자, 물리학자, 공학엔지니어 등이 동화 속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고심했지만 쉽게 풀리지 않았다. 이후 조금씩 해석의

32) 류츠신 작, 허유영 역, 《삼체3부-사신의 영생》, 450쪽.

실마리를 찾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은 모두 과학적 추론으로 뒷받침됐다. 소설의 후반부로 갈수록 상징들의 숨은 의도가 하나씩 벗겨지고 마침내 그 모든 상징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채면, 비로소 이 동화들은 목직한 과학적 밀도와 문학적 정취를 지닌 하드SF문학으로 재탄생 되는 것이다. 동화 속의 설정과 복선이 결국 소설 《삼체》의 전반을 아우르는 설정과 복선으로 맞물리는 그 인공의 세밀한 결맞음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류츠신포 과학소설의 표지였다.

V. 맺는 글

《삼체》는 이런 수많은 추론과 상상력의 대향연이 펼쳐지는 SF의 세계이다. 신기한 과학적 아이디어와 인류사의 수많은 에피소드가 종횡으로 얽히고 부딪치며 맞서는 모습은 언뜻 산만하고 무질서하며 무의미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일화들은 영원한 우주 서사시를 만들어나가는 단서이자 복선이며 인류와 우주의 상호작용의 증거이기도 하다. 결국 《삼체》는 우주적 관점에서 본 인류의 본질에 대한 관한 이야기이면서 또한 역으로 인류의 본질에 대한 투시를 통해서 우주의 문명을 상상하고 그 문명들이 우주에 가한 작용을 상상하며 우주의 진화도를 그려나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본 연구자는 《삼체》를 인류와 우주가 상호작용하며 우주 자체를 변화시켜나간 무궁한 대서사시라고 평가한다.

《삼체》에서 마주한 세계는 경이롭고 황홀한 코스모스는 아니다. 《삼체》의 우주는 경이로운 공포의 세계이다. 물론 그 공포의 많은 부분은 칼 세이건의 지적처럼 인류의 ‘잘못’된 역사에 대한 ‘죄의식’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다. 류츠신포는 중국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통해 인류라는 지적 종족의 약점을 봤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암흑의 숲’이라는 우주문명의 보편적 진화 양식을 상상했다. 그렇다면 류츠신포가 《삼체》에서 하고 싶었

던 말은 무엇일까?

《삼체》의 소망은 바로 윈텐밍의 동화에서 찾아볼 수 있을 듯 하다. “어제가 오늘 같고, 또 오늘이 내일 같은” “이야기 없는 왕국”에 이야기를 있게 한 것은 도철해를 건너갔던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삼체》는 “유년기의 인류문명이 문을 열고 살며시 얼굴을 내밀었다가 끝없는 어둠에 몸서리치며 문을 굳게 닫아걸기”³³⁾를 원치 않는다. 설령 도철해를 건너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 두 사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밖에” 처해 있고, 자신의 기억을 표류병에 담아 새로운 우주에서 복원되길 소망하는 그 날 역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닌 시간 밖의 시간”³⁴⁾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그런 면에서 《삼체》가 보여주는 우주 속 인류의 모습은 칼 세이건의 유명한 다음의 서술과 무척 닮아 보인다.

우리의 상상력이 아무리 대담하게 비약한다한들 지구를 코스모스라는 광대한 바다와 대등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구는 광막한 우주의 미아이며 무수히 많은 세계 중의 하나일 뿐이다. 지구가 우리에게만 의미심장한 곳일지 모르겠지만, 어쩌라 우리의 보금자리요 우리를 길러 준 부모가 지구인 것을. (...) 바로 여기에서 인류는 코스모스 탐험의 열정을 키웠으며 아무런 보장없이 고통스러운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³⁵⁾

“아무런 보장없이”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코스모스를 향한 탐험”,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우주가 작동하는 우주의 고유한 모습이 아닐까?

33) 류츠신 작, 허유영 역, 같은 책, 527쪽.

34) 劉慈欣, 《三體Ⅲ- 時間之外的往事, 序文》, 2쪽.

35) 칼 세이건, 홍승수 역, 《코스모스》, 사이언스북스, 2006, 33쪽.

< 참고문헌 >

- 고장원 지음, 《중국과 일본에서 SF소설은 어떻게 진화했는가?—중국과 일본의 과학소설 역사》, 부크크, 2017.
- 김진공, 〈누가 유랑하는 지구를 구할 것인가? - 영화 「유랑지구」와 중국의 ‘인류운명공동체’ 이념〉, 《중국어문학지》 第68輯, 2019.
- 류츠신 작, 이현아 역, 《삼체1부-삼체문제》, 단숨, 2013.
- 류츠신 작, 허유영 역, 《삼체2부-암흑의 숲》, 단숨, 2016.
- 류츠신 작, 허유영 역, 《삼체3부-사신의 영생》, 단숨, 2019.
- 박민호, 〈류츠신의 「삼체」를 통해본 정치적 알레고리와 윤리의 아이러니〉, 《中國文學研究》, 2018.
- 박정훈, 〈류츠신(劉慈欣) 「삼체」의 니힐리즘적 세계관 고찰〉, 《中國研究》 第86卷, 2021.
- 칼 세이건, 홍승수 역, 《코스모스》, 사이언스북스, 2006.
- 프랜시스 후쿠야마, 이상훈 역, 《역사의 종말》, 한마음사, 1992.
- 李廣益, 〈中國轉向外在: 論劉慈欣科幻小說的文學史意義〉,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第8期, 2017.
- 李廣益, 〈作為世界文學的科幻文學〉, 《文藝理論與批評》 第4期, 2021.
- 劉慈欣, 《三體》, 重慶出版社, 2008.
- 劉慈欣, 《三體Ⅱ-黑暗森林》, 重慶出版社, 2016.
- 劉慈欣, 《三體Ⅲ-死神永生》, 重慶出版社, 2016.
- 劉舸·李雲, 〈從西方解讀偏好中國科幻作品的海外傳播—以劉慈欣《三體》在美國的接受為例〉, 《中國比較文學》 第2期, 2018.
- 劉媛, 〈科學思惟與人文思考的張力 - 評劉慈欣《三體》三部曲〉,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第1期, 2016.
- 羅雅琳, 〈新穎的劉慈欣文學: 科幻與第三世界經驗〉, 《現代中文學刊》 第5期, 2016.

- 宋明煒, 〈彈星者與面壁者〉, 《上海文化》, 2012.
- 宋明煒, 〈在崇高宇宙與微紀元之間:劉慈欣論〉, 《當代文壇》 第1期, 2021.
- 吳瑾瑾, 〈中國當代科幻小說的海外傳播及其啓示-以劉慈欣的《三體》爲例〉, 《山東大學學報》 第6期, 2021.
- 闫作雷, 〈《三體》中的‘素朴主義社會’與‘最初的人’〉,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第6期, 2020.
- 余亮, 〈刺破人文星空, 誰是《三體》的同行者〉, 《文藝理論與批評》 第4期, 2021.
- 曾軍, 〈《三體》的‘Singularities’或科幻全球化時代的中國邏輯〉, 《文藝理論研究》 第1期, 2016.
- <https://blog.naver.com/rockid74/222065174856>, 작성자: 뉴로 〈류츠신 소설, 《삼체》의 치명적 오류들〉
- https://www.sciencetimes.co.kr/page/22/post_type=news/고장원: 〈우주여행의지름길: 워홀&알쿠비에르항법〉

<Abstract>

《The three body problem(三體)》 is a world of science fiction where numerous reasoning and imagination unfold. The appearance of mysterious scientific ideas and numerous episodes of human history intertwining and bumping into each other can seem distracting, disorderly, and meaningless. However, the numerous anecdotes are clues, duplexes, and evidence of the interaction between humanity and the universe that create eternal cosmic epic. In the end, 《The three body problem》 is a story about the nature of mankind from a cosmic point of view, and vice versa, through a perspective on the nature of mankind, imagining the civilization

of the universe and imagining its effect on the universe.

The universe of 《The three body problem》 is a wonderful world of fear. Of course, much of the fear can be seen as derived from the “sense of guilt” of humanity's “wrong” history, as Carl Sagan pointed out. In China's history and human history, Liu cixin saw the weaknesses of mankind and imagined a universal evolutionary style of space civilization called “dark forest”. Nevertheless, 《The three body problem》 says that without any guarantee, Exploration to Cosmos to pioneer our destiny, itself, is the original way the universe works.

Key Words : 류츠신 (Liu cixin), 《삼체》(《The three body problem》), 과학소설(SF), 인류와 우주의 상호작용(the interaction between humanity and the universe), 과학과 문학의 상호관계(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science and literature)